

# 한민족의 끈끈한 정을 확인한 3박 4일

글\_이준환(결핵연구원 분자생물검사연구팀)

1

2008년 9월 22일 오전 11시경, 여행가방을 들고 결핵협회 본부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였다. 중국 연변에 있는 결핵병방치소와 우리 협회가 국제교류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3박 4일 일정으로 함께하게 된 것이다. 이번 출장에는 충북지부 이성연 사무국장, 본부 총무인사팀 이준영 님, 대전·충남지부 김경환 주임이 동행하였다.

12시경 공항에 도착하여 출국 수속을 보기 위해 기다리는데 중국 연길공항 기후사정이 좋지 않아서 4시간 비행이 연장되어 인천공항에서 6시까지 발이 묶였다. 여행이 시작되기 전부터 약간의 여독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오후 7시 30분쯤이 되어서야 연길시 공항에 도착하였다. 공항에는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연변 결핵병방치소의 김덕복 소장님과 유육자 선생님, 최 선생님께서 미리 나와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셨다. 그날 연변에 갑자기 내린 비로 날씨가 서늘했는데, 반팔 차림인 내 모습을 본 유육자 선생님은 두꺼운 옷을 좀 가져왔냐며 챙겨주시기도 했다. 떠날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여름 날씨여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공항을 나서자 온몸에 한기가 느껴질 정도였다. 연변의 날씨는 딱 우리나라 초겨울 날씨 같았다.

시간이 늦어진 관계로 도착한 날 오후에 연변결핵병방치소를 방문하기로 했던 일정이 이를 뒤로 미루어졌다. 그리하여 다음날인 23일은 결핵병방치소 분들의 배려로 백두산 관광을 하게 되었다. 23일 오전 새벽 5시 30분경에 백두산으로 출발 중간에 아침식사를 하고 약 10시경에 백두산 입구에 도착했다. 그런데 그때 3일 동안 운전 및 가이드를 해주신 최 선생님께서 입구의 한 구멍가게 같은 곳으로 들어가시더니 겨울점퍼를 하나씩 나눠주셨다. 산 위는 매우 춥기 때문에 겨울점퍼를 챙겨가는 것은 필수라고.

백두산, 중국 이름으로 장백산. 입구에서부터 차로 천지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중간까지는 큰 버스, 천지 바로 밑까지는 4륜 구동차로 이동하였다. 4륜구동차로 천지까지 올라가는 동안 구불구불한 산길 도로를 거의 시속 100Km 가까이 달리는데 놀이동산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기분이었다. 한마디로 스틸 만점.

차에서 내려서 조금 더 오르니 발 아래로 광활한 대지와 웅장하면서도 고요한 산이 펼쳐졌다.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인지 구별이 안 될 만큼 맑고 푸르른 천지는 한 장 사진 속에 담아가는 것으로 끝내기엔 너무나 아까운 풍경이었다. 내려오는 길에 천지물이 떨어진다는 징백폭포를 보고 그 옆에 백두산 온천물에 삶았다는 계란도 하나씩 맛보았다.

다음날 24일 오전에는 연변결핵병방치소를 견학했다. 아침식사 후 결핵병방치소로 이동하면서



① 이번 출장길을 함께했던 대전·충남지부 김경환 주임, 본부 이준영 님, 충북지부 이성연 사무국장과 연변결핵병방치소 유육자 선생님과 함께 정문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② 날이 좋아 온종일 천지를 볼 수 있었다.



③ 장백산 입구에서 일행들과 함께



④ 북한과 중국의 경계인 중국도문변경다리 위에서 필자. 저 멀리 북한의 모습이 보인다.

본 연길시 풍경은 이국적이면서도 낯설지 않았다.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우대 정책에 따라 연변자치주 내의 정부기관이나 신문 광고 등에 조선족 자체의 문자를 우선적으로 쓰고 간판도 한글과 한자가 함께 표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도로에는 바퀴가 3개 달린 삼륜차부터 여러나라의 자동차들이 달리고 있는데, 옛날 우리나라 시골의 모습에 현대의 발전된 도시모습이 뒤섞인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어느덧 연변결핵병방치소에 도착했다. 시간은 9시경. 윤옥자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방치소를 둘러보았다. 병원시설은 입원실도 부족하고 검사장비들도 대부분 부족하고, 한마디로 열악한 실정이었다. “분자생물학 분야의 검사는 하고 있느냐”는 필자와 이성연 국장님의 질문에, “올 초까지 연변대학과 같이 실험을 진행하다가 지금은 잠시 중단된 상태”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결핵군 도말검사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는데 우리처럼 루프를 사용하지 않고 작은 대나무막대기 같은 도구를 이용해 도말검사를 하고 있었다. 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국가에서 무상 결핵약을 지급하게 되면서 갑자기 숨어있던 결핵환자들까지 나타나 결핵환자 자체가 많이 증가했지만 시설이나 일을 할 인력이 많이 부족한 듯했다.

방치소를 돌아보고 나서 러시아, 북한, 중국의 세 나라를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훈춘시 방천전망대에 방문하여 두만강 건너 북한과 어른 허리보다 약간 더 높은 러시아, 중국의 국경선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 코스인 중국도문변경으로 이동하였다.

도문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변경선이라고 적힌 선 하나로 북한과 중국으로 나뉘지는 국경선 지역 다리 건너로 보이는 북한 건물들……. 애 저기가 바로 북한이구나, 하는 생각에 감격스러웠다. 백두산과 방천전망대, 도문변경선, 두만강 건너로 보이는 북한건물과 산을 중국이 아니라 북한에서 건너다보며 ‘애 저기가 중국이구나, 러시아구나, 여기가 장백산이 아닌 백두산 천지구나’ 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도문을 떠나야 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두만강 너머로 북한 건물을 볼 수 있었는데 저 정도 강이면 그냥 넘어올 수도 있겠다 싶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운전과 가이드를 해주신 최 선생님은 “겨울이 되면 저널 무렵 밥 달라고

넘어와서 문 두드리는 북한주민이 종종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다. 바로 두만강만 건너면 북한이라는 반가움도 잠시, 일행의 마음속에 안쓰러움과 씁쓸함이 맴돌고 있었다.

그날 저녁 때 연길 서시장을 잠시 둘러보았다. 상점들은 우리나라 재래시장과 비슷한 모양인데, 네온사인도 없고 한글과 한문으로 써진 간판들, 파는 물건이 조금씩 다른 것이 이곳이 연변임을 느끼게 해줄 뿐…….

다음날 아침 오전 비행기라 서둘러 집을 꾸러 공항으로 향했다. 마지막 날 아침에도 역시 윤옥자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아침식사를 같이 했다. 3일 내내 우리 일행의 아침은 꼭 한국식으로, 저녁은 중국과 연변에서 먹어볼 수 있는 음식들로 챙겨주시던 윤 선생님과 여기저기 이동시 운전과 가이드를 해주신 최 선생님의 배려와 환대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한국으로 향하였다.

연변거리나 건물들, 풍경들, 연변결핵병방치소에서 만난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어렸을 적 할머니 댁에서 느낄 수 있는 푸근함이랄까, 오랜만에 그런 기분을 느껴보았다. 아마도 그 따뜻함은 조선족과 우리는 같은 한민족이라는 애정이 서로에게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가 아닐까 싶다.

우리 대한결핵협회와 연변결핵병방치소가 한민족이라는 유대감을 바탕으로 결핵퇴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

